



리보와 앤

어윤정 글 | 해마 그림

문학동네 | 초등 3학년 이상

제23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

활동1 “내가 누군지 알겠어?”

리보와 앤, 그리고 도현이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.
그리고 도서관이 닫히고 나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죠.

리보와 앤, 도현이는
어떤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 친구인지
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.

리보는 뭘 좋아해?
리보가 우리 엄마를
만난 적이 있을까?



안녕하세요!
즐거움과 안전을
책임지는 여러분의 친구,
리보입니다.
무엇을 도와드릴까요?



리보! 네 말은 너무
기계적이야.
다정한 느낌이 들게
잠들었다가 깨어났다고
말해 줄래?



Blank box for writing a response to the first question.

Blank box for writing a response to the second question.

Blank box for writing a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.

활동2 “괜, 참, 나, 고!”

이상한 일요일, 사람들은 긴박하게 도서관을 빠져나가고 도서관 문이 닫혔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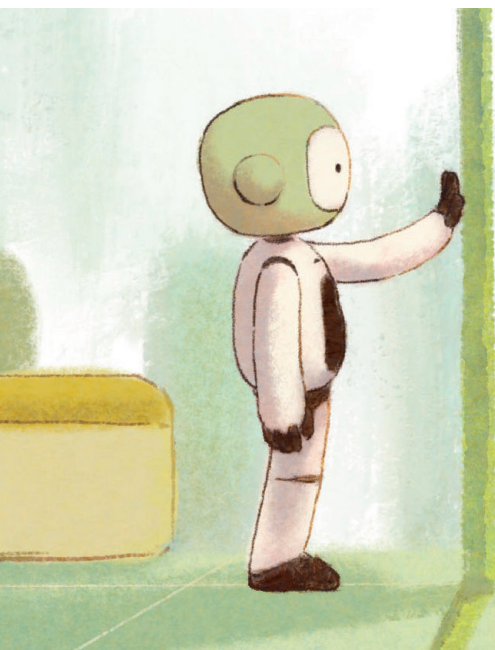
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?

내가 도현이가 되어

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리보에게 알려 주세요.

그리고, 서로의 마음도 전해 보세요.

유도현 님! 잘 지냈나요?



활동3

“리보! 우리는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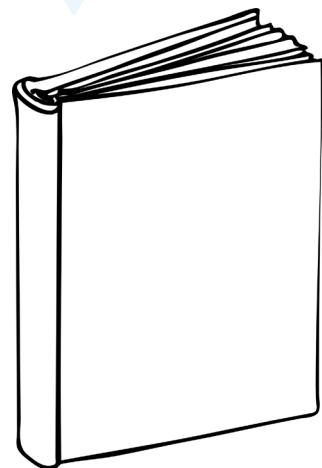
일 년 전, 그 아이 도현이는
리보에게 책 한 권을 내밀며 말했어요.
“유도현의 발견! 리보는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.”

내가 리보를 만난다면 리보에게
어떤 책을 건네고 싶은지
책 제목을 쓰고, 그 까닭을 말해 보세요.



이 책을 네게 건네는 이유는

때문이야!



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던 그때,

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.

리보와 도현이는 만났을까요? 도서관의 문은 열렸을까요?

내가 작가가 되어 책의 뒷이야기를 이어서 써 보세요.

다다다, 다다다.

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울림.

익숙한 진동. 낯익은 주파수.

내가 기다리던 그 소리.....

아이의 발소리였다.

나는 현관문 손잡이로 손을 뻗었다.

가슴에서 지르르 진동이 울렸다.

